# 5. 공부와 시험

옛날의 학자들은 일찍이 벼슬을 얻기 위해 工夫하지 않았으나, 學問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추천해서 벼슬자리에 앉혔다. 관직이라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지 自己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科擧(과거)로 관리를 뽑아, 높은 學問과 뛰어난 행동이 있더라도 科擧(과거)가 아니면 그런 道理를 펼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과거시험 공부에 얽매여서 學問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니 이 또한 핑계 대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손수 일을 해서 父母를 모시고 時間이 남으면 글을 읽어 德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고, 단지 父母가 원하는 것이라 하여 과거공부만 하니, 그 일은 몸소 밭 갈고 품팔이하며 짐을지는 일보다 백배나 편한 일이다. 과거시험 때문에 學問을 못하고 學問 때문에 과거시험 工夫를 못한다고 핑계대면 둘 다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벼슬하지 않을 때는 벼슬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막상 벼슬자리에 나아가면 그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본마음을 잃는 자가 많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自身의 뜻\*을 펼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도 집이 가난하여 꼭 벼슬을 해야 한다면, 높은 관직을 사양하고 지위가 낮은 지방관리가 되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해야만 한다. 그 경우에도 公務(공무)\*를 게을리 하고 禄俸(녹봉)\*만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처세장)

\*뜻: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꿈이나 소신이나 원칙을 말함 \*稼俸(녹봉): 왕이 관리의 급료로 주는 금품

\*公務(공무): 공적인 업무 곧 나랏일

# 율곡 선생이 말하는 공부

구분	학문을 위한 공부	관리가 되는 공부	
목적	자기를 위함	남을 위함	
내용	자기의 인격수양에 필요한 내용 과거시험에 필요한 내용		
방법	독서와 실천과 자기 수양	내용을 외우고 글을 짓기	
최종목표	聖人이 되는 것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공통점	• 부모를 모시며 일하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 • 학문과 관리가 되는 공부 둘 다 필요하다.		

### 본문 해설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해 과거시험공부 때문에 學問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율곡 선생이 말하는 學問이란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밝히고 실천하는 것, 최종적으로 聖人이 되는 것을 말해요.

과거시험공부란 관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工夫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시험공부와 學問의 목적이 다른 것이지요. 아마도 당시에 과거시험을 工夫하느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學問을 게을리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율곡 先生은 과거시험공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본인도 과거시험에서 여러 번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이 學問을 게을리 하면서 과거시험의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고 해서 녹봉(봉급)을 탐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한다고 했지요. 높은 관리가 뜻을 펼칠 수 없으면 벼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려면 과거시험공부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學生들은 종종 시험공부 때문에 父母님이나 집안일을 돕지 못하고, 또 가족의 행사에 빠지기도 하지요. 父母들도 시험공부라면 가족에게 소홀히 해도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學生이나 父母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해가 돼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율곡 先生이 지금 세상에 산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시험공부 때문에 人間이되는 工夫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시험 때가 되어도 父母님이나 집안일을 돕고,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 생각해 볼 문제

1.앞에서 율곡 선생이 말한 두 가지 공부를 오늘날 입장으로 바꾸어 말하면 참된 인간이 되는 공부와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에 해당된다. 혹시 대학입시나 학교시험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참된 역할을 못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시오.

( )

① 엄마가 시험이라고 가족행사(생신, 결혼식, 제사 등)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불참했다.
② 학원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학교 청소를 안 하고 그냥 왔다.
③ 공부시간이 아까워 집안일(설거지, 청소, 심부름 등)을 전혀 도와 준 적이 없다.
④ 밤늦게 공부하느라 일어나고, 밥 먹고, 등교하는 것까지 엄마가 도와준다.
⑤ 시험공부를 핑계로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
⑥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깔본 적이 있다.
⑦ 시험성적이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⑧ 기타( )

2. 시험을 위한 공부와 내가 원하는 공부를 놓고 갈등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	시험을 위한 공부	내가 원하는 공부	
이유			

3.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어쩌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원하는 직업은 대개 공부를 통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성적과 상관이 없이 행복을 찾는 방법 또는 길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

#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공변될	일	시험할	증험할	과목	업
한자	公	務	試	驗	科	業
음	공	무	시	험	과	업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인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公式( 식) : 세상이 다 알도록 정해진 방식
義務( ): 일정한 사람에게 부과되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試圖(도) : 어떤 일을 해 보려고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科擧( 거): 옛날 관리를 뽑던 시험.
農業(농 ) :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직업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試驗( )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사람들은 제각기 業務( )에 충실했다.
다. 그 사람은 公務( )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었다.
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科學( )이다.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蓋仕者(개사자)는 爲人(위 )이요 非爲已也( 위 야)라.

• 풀이:蓋(개)-대개/仕(사)-벼슬하다/者(자)-~것/爲(위)-위하다/人: 남/非-아니다/己-자기/也(야)-문장 뒤에 쓰이며 뜻이 없는 어조사

• 해석 : 대개 벼슬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 공명선의 工夫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공명선이 증자(공자의 여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弟子로 배운지 3년이 다 되도록 글을 읽지 않으니 증자가 말했어요.

"네가 내 밑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 工夫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자 공명선이 대답했어요.

"어찌 감히 工夫하지 않았겠습니까? 先生님께서 집에 계실 때를 살펴보니, 父母님이 계시면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말에게도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뻐하여 배우고 있으나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先生님께서 손님 접대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니, 공손하고 검소하며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며 이것을 배우고 있으나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先生님께서 朝廷(조정, 나라에서 정치를 의논하는 곳)에 계실 때를 보니, 아랫사람을 헐뜯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며 이것을 배우고 있으나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배우지 않으면서 先生님의 제자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큰 소리로 아랫사람을 야단치거나 떠들지 않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 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도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 야단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못된 아이들은 그걸 알고 더 까불지요. 또 손님에게 공손하고 조정에서 아랫사람을 헐뜯거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윗사람의 도리이지요. 그러니 어찌 글 읽는 것만이 工夫일까요? 옛날에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무리 배워도 배운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무리 시험공부 대학입시 공부가 중요해도 바른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것을 소홀히 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 때 가서 人間이 되는 도리를 工夫를할 수 있겠어요? 工夫란 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올바른 人間이 일을 가장 중요한 기초 工夫로 여겼지요. 앞의 공명선은 그것을 더 철저히 工夫했다고 할 수 있지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